



항일무장독립전쟁의 잊혀진 기억 ‘범도루트’를 찾아 떠나다

〈凡道, 영웅·보통사람·호랑이 다니던 길〉

이진 작가 '만주에서 길을 묻다' 기행문·만주무장독립전쟁 입문서 두만강~하얼빈~뤼순 여정 담아내 전남매일 연재 수정·보완해 엮어



이진 작가

행문이자 만주 무장독립전쟁 입문서인 '만주에서 길을 묻다' (복합)를 출간했다. 이 작가는 지난해 9월 27일~1월23일까지 전남매일 주말판 9면에 19회 연재한 글을 수정·보완해 책으로 엮어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무장독립운동가들이 걸었던 '범도루트'를 따라 만주의 드넓은 들판과 낮은 도시들을 찾아 떠난 작가가 연길, 훈춘, 두만강, 용정, 하얼빈, 뤼순에 이르는 약 3,200km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1부 '만주에서 여름휴가'에서는 연길감옥 파육 투쟁, 15만 원 쟁취 사건, 장동학교 교사들의 헌신, 훈춘의 호랑이 황병길과 그의 아내 김숙경, 삼둔자 전투의 홍범도와 최진동, 어랑촌 전투의 김좌진과 의사 박서양, 연변의 변화와 명동춘의 현재, 백두산과 장백폭포의 웅장함, 간도



만주에서 길을 묻다 이진 복합

일본총영사관의 어둠, 경신대잡변의 아픔, 의열단 동지였던 김학철과 정율성의 삶, 안중근참모 중장의 침략원흉 격살 현장, 이회영과 신재호 선생이 스러져 간 뤼순감옥까지 살펴본다. 작가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역사의 숨결이 느껴진다.

2부 '2014~2024 언론사 기고문'은 지난 10년간 언론에 기고했던 글을 엮었다. 광주 정신, 광주시의 예산 구조와 과제, 지방의회의 역할, 대중교통 정책, 5·18민중항쟁의 현재적 의미와 미래 지향성 등이다.

'만주에서 길을 묻다'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여행기를 넘어, 우리 시대를 향한 질문과 성찰을 담은 기행문이다. 책을 펼치면 작가의 시선을 따라 잊힌 역사 속 인물들을 다시 만나고, 무장독립전쟁의 기억을 되찾는 특별한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전남매일 주말판(지난해 10월 4일자) '만주항일 무장투쟁역사학교 범도루트를 가다' PDF 파일.

이진 작가는 "위대한 투쟁은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에서 비롯되며 그들의 비범한 싸움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면서 "과거를 외면한 채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물을 표를 그려본다. 책을 읽는 동안 일상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가치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진 작가는 1980년 중학교 3학년 시절 광주 민중항쟁을 겪었으며 이후 군부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전남대학교에 다녔다. 늦깎이로 정치학 박사과정을 마친 뒤 5·18기념재단을 시작으로 국회의원보좌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민주당 국장, 전남도당·광주시당 사무처장 등을 역임, 현재는 광주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조혜원 기자

젊음이라는 찰나, 영원을 꿈꾸다

시인 고선경 첫 산문집 '내 꿈에 가끔만 놀러와'



다. 대신 가장 예민하고 가장 생생했던 그 시절의 감각들을 차근차근 되짚는다.

고 시인이 말하는 '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간밤의 꿈이고 또 하나는 현실 너머의 바람이자 기대다. 고 선경은 이 두 세계를 넘나들며 글을 쓴다. 뒤섞인 빨래와 워다 만 책과 펼쳐진 노트북,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쳐진 베개처럼 너저분하고 복잡한 청춘의 풍경을 담담하게 묘사하면서도 혼란스러움조차 지워내지 않고 온전히 마주하려 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고 시인이 '살아내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다. 경제적 고민에 짓눌리기도 하고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갈피를 못잡기도 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또 쓴다. 시와 일상이 요란하고 고요한 영망진창이라는 고백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목직한 위로로 다가온다.

'내 꿈에 가끔만 놀러와'는 단순한 청춘의 초상화를 넘어선다. 삶이 건조하고 척박한 것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꾸준히 가꿔온 한 사람의 기록이며 꿈을 꾸는 법과 현실을 살아가는 법 사이에서 길을 찾으려 애쓴 시간의 풍경이다.

조혜원 기자

시인 고선경이 산문집 '내 꿈에 가끔만 놀러와' (문학동네)를 출간했다.

첫 시집 '사위젤과 소다수'로 독자들에게 신선한 감각과 개성 넘치는 목소리를 각인시킨 고 선경 시인이 청춘의 면면을 더욱 진솔하고 섬세한 언어로 풀어냈다.

이 책은 시인이 수년간 블로그에 연재해온 일기와 메모, 새로 쓴 글들을 엮은 책이다. 찰나 같아 영원히 가까운 젊음의 감각을 기록한 이 산문집에는 고선경 특유의 맑고 예민한 감수성이 가득 담겨 있다. 무심한 듯 톡톡 던진 문장 하나에도 뜨겁게 끓어오르는 감정의 결이 숨어 있고 일상의 구석구석을 응시하는 날카로운 시선이 문장마다 살아 있다. 단란을 준비하던 시절의 치열한 내면 싸움, 일상에 불쑥 찾아오는 우울의 파도, 세상과 연결되기를 주저하면서도 결국엔 한 발 내딛는 시인의 용기가 진솔하게 그려진다. 허무맹랑하고 허점투성이인 우리 누구나 지닌 그 영망진창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꿈에 빚대어 써 내려간 이 책에서 고선경 시인은 청춘을 피상적인 찬사나 소비의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

개와 인간 오래된 유대 되짚어보는 감동 여정

길상호 작가 '나의 먼 이름에게'



어쩌다가 인간의 세상에 왔는가 라는 질문을 품으며 자신의 이름과 기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따뜻하고 안전한 인간의 품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나'는 어느 날 빛의 구덩이를 통해 고대 늑대로서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 과거의 기억을 잃은 채 새로운 무리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며 인간을 향한 호기심과 연민, 그리고 사랑을 되새기게 되는 이 여정은 단순한 환상이 아닌 존재의 본질을 향한 깊은

제3회 한국과학문화상과 제10회 비룡소문학상을 수상한 길상호 작가가 반려견의 눈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되짚는 감동의 이야기 '나의 먼 이름에게' (창비)를 출간했다. 인간과 개 사이의 오랜 인연을 환상과 사실이 어우러진 이야기로 풀어낸 소설이다.

'나의 먼 이름에게'는 자아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은 청소년 독자와 우리 곁에서 무조건적인 마음으로 함께해 주는 반려견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성찰을 건넨다. 소설은 '나'라 불리는 한 마리 개가 '우리는

단순한 환상이 아닌 존재의 본질을 향한 깊은 탐구로 이어진다. 이 작품의 큰 매력은 '나'의 시선을 통해 인간 세계를 관찰하면서 개가 품은 감정과 생각을 섬세하게 그려낸다는 점이다. 인간에게 줄로 묶인 채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고 당당했던 늑대의 피가 흐르는 한마리 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반려동물의 삶에 질문을 던진다. 인간의 세상에서 개가 느끼는 억압과 체념,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이 교차하며 울림을 준다.

늑대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한 신은정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림은 이야기에 생생한 현실감을 더한다.

조혜원 기자

전남문화재단 '영암 내동리 쌍무덤' 보고서 발간

전남문화재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영암 내동리 쌍무덤' 발굴조사 성과를 집대성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영암 시종 고분군'이 지난 22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된 시기에 맞춰서다.

발굴 보고서에는 방대형 분구의 구조와 축조 기술, 복수의 매장시설(석실, 석곽, 옹관), 금

동관 세움장식, 청자 잔, 유리구슬 등 총 448점의 유물을 분석·연구한 내용을 수록해 마한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적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동리 쌍무덤은 영산강 유역방대형 고분 중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로 평가된다. 점토블럭 성토기법, 제방형 축조방식, 목주 결구 구조, 벽

면 미장 기술 등 고도의 토목 기술을 사용해 분구를 축조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역사적 가치가 인정됐다.

주요 유물은 금동관 세움장식, 중국 청자 잔,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 일본의 하나와가 확인됐다. 이는 당시 영암 지역 마한 세력이 중국, 백제, 일본, 동남아시아 등 대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외래문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화, 마한의 정치적 권위를 시각적 상징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최진화 기자

새책 나왔어요

동공이 약사의 알찬 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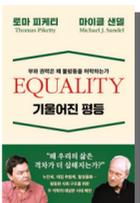
약국에서 짧게 들은 복약 지침만으로는 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약은 익숙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로 일하고 있는 '동공이 약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의약품에 대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을 엮어 책을 냈다. 책은 여드름 연구부터 스테로이드 크림, 비충혈제거제, 위장약, 진통제, 혈당 조절제, 눈 건조증 약, 수면제 등 일상에서 자주 쓰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다룬다. 약사만이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복용 원칙과 주의사항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다. 바쁜 직장인은 물론이고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이들에게까지 필요한 '손안의 약국'이다. 미래의창·동공이 약사 지음.

아홉 살 환경 사전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고 누적 80만 부 이상 판매된 어린이 필독서 '아홉 살 사전' 시리즈 신간. 함께 사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표현 80가지를 담아 어린이의 생태감수성과 어휘력을 길러 주는 교양서다. 박성우 시인의 섬세한 글과 김효은 화가의 따뜻한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독자들이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작은 노력을 실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가꾸다'부터 '회복하다'까지 환경과 관련된 80가지 말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때 필요한 표현들을 쉽게 재미있게 알려준다. 흔히 쓰이는 말을 생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창비·박성우 지음.

기술어진 평등



2024년 5월 세계적인 두 사상가 토마 피케티와 마이클 샌델이 파리경제대학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각기 프랑스와 미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대중 사상가다. 이 만남에서 '평등과 불평등, 진보'를 키워드로 평등의 가치를 성찰하고, 불평등이 왜 문제인지, 우리를 둘러싼 각종 격차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이 펼쳐졌다. 피케티와 샌델은 불평등의 세 가지 측면, 즉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을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계화와 능력주의, 불평등한 기본세 접근권, 기술어진 정치 참여, 사라진 노동의 존엄성 등 다양한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친다. 와이즈베리·토마 피케티 지음.

엔비디아 젠스 황, 생각하는 기계



엔비디아 CEO 젠스 황의 공식 자서전. 현대 인공지능의 발전 역사는 엔비디아의 기술 혁신과 정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젠스 황은 모두가 외면하던 시절부터 AI 시대를 내다보고 한 걸음 앞서 연구개발에 전폭적으로 투자했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절대 그에 대한 신념만큼은 꺾지 않았다. 그리고 덕분에 이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는 스티브 잡스가 열었고, 전기차 시대는 일론 머스크가 열었다면, 오늘날의 AI 시대와 향후 우리가 마주할 놀라운 세상은 바로 젠스 황이 만들어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비디아와 젠스 황의 모든 인사이트를 담았다. 알에이치코리아·스티브 위트 지음.

일억 번째 여름



한국과학문화상,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 K-스토리 공모 등 각종 공모를 휩쓸고 예스24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 선정된 청예의 신작 장편소설. '오렌지와 빨강', '낭만 사랑니' 등 도발적인 시선과 독특한 문장으로 주목받은 청예는 이번 작품에서 처음으로 곡진한 사랑 이야기를 펼쳐 보인다. 무더운 여름만이 반복되는 세계에서 멸망을 막기 위해 함께하는 이들은 과연 불안과 공포를 이겨 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서로를 구하기 위해 온 삶을 내던지는 모습이 깊은 울림을 전하는 가운데, 잔혹한 운명 속에서 피어 나는 애달픈 사랑이 진한 잔상을 남긴다. 살아가는 이유를 완성해준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는 5명의 아이들로 이뤄진 소설. 창비·청예 지음.